

# 장성 서삼초, 마을학교 연계 먹거리 통한 탄소중립 실천캠페인

### 지난 22일까지 세 차례, 편백꿈마을학교와 연계 진행 환경친화적 식생활에 대한 책임 의식·실천 행동 구성

장성 서삼초등학교는 지난 13일부터 22일 까지 세 차례에 걸쳐 편백꿈마을학교와 연계하여 먹거리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였다. '지구를 살리는 식탁, 자연스럽게 먹어요'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탄소중립 행동을 끌어내는 식생활 실천과제를 알아보고, 먹거리 순순환 체계를 경험하며 환경친화적 식생활에 대한 책임 의식과 실천 행동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날 활동으로 우리의 식생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이해 활동 및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활동으로 편백꿈마을학교 농원에서 키운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랜선 요리 체험을 실시하였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재료 껍질 및 자투리 부분을 버리지 않고 말리도록 하였다. 세 번째 활동으로 먹거리 순순환 실천운동으로 케일 심기와 편백

나무 목욕 식재 시 말려두었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여 심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식생활 탄소중립을 몸소 실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4학년 최희수 학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기후위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편식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겠습니다"라고 활동 소감을 말했다.

심명자 교장은 "서삼초 학생들이 먹거리의 생산부터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식생활이 길러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 영광백수서초, '백수서캠프' 실시



백수서초등학교는 지난 23일 '백수서캠프'를 실시하였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어린이 놀이 활성화 '놀며 배우며'를 실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경험을 통한 관계회복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였다. 찾아오는 수련활동 캠프는 스카우트 강사가

참여하여 텐트를 설치하고 조별 협동놀이, 미션 코인 게임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집중력과 신체를 활용한 놀이 문화를 체험하였고,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답이 듣고 사려깊게 행동하는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여 협동과 배려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험을 체득하였다.

백수서초등학교는 '작지만 별걸 다 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연극으로 자기 표현하기, 지성과 감성이 자라는 미술 수업, 체험놀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방문, 공동체육의 날 '물물산견기'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쓰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교육청 Wee센터,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 나서

### 성인지 감수성 증진·건전한 교우관계 형성 위해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과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9월~11월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푸드아트테라피를 통해 3회기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 및 생명존중 교육을 중시 테마로 진행된다.

무안Wee센터는 일상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심리치료 및 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 자존감을 높이며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열린 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약간은 부끄럽게 여겼던 성교육을 푸드아트테라피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어 좋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선지 교육장은 "심리적으로 지친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완도 고금초, 전교생 대상 '가을맞이 그림책 콘서트' 열어



완도고금초등학교는 지난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을맞이 그림책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그림책 콘서트는 섬지역 학교 특색프로그램 중 하나로 실시되었다. 감성 중심 문화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문학과 음악을 통해 학

### 감성 중심 문화예술교육 일환

생들의 바른 인성과 심미성을 기른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공연은 바이올린, 첼로, 드럼, 피아노 등 실내악 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그림책을 생동감 있는 성우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 빛과 모래로 연출하는 '샌드아트' 콘텐츠와 소프라노의 가창까지 더해져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즐기게 되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 행사에 학생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그림책 콘서트를 관람한 박재현 군은 "그림

책을 성우님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북극곰 아들'을 들을 때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가슴이 콩닥콩닥'에서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양미순 교장은 "이번 그림책 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이 그림책에 흥미를 가지고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금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광주교육연수원, 상담·생활교육 직무연수

광주교육연수원이 지난 20~24일 나흘 동안 초·중등교원 30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상담 및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25일 광주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심화된 교실 갈등, 돌발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자 상담가, 정신과 의사 등을 강사로 위촉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했다.

연수 과정은 ▲MBTI(성격유형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우리 교실 동상이몽, PDC(학급 긍정훈육)로 극복하기 ▲학생 행동에 대한 전문의의 조언 ▲집단상담 레시피로 진행됐다.

특히 '교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를 주제로 자기 이해, 문제행동 이해, 개인 및 집단 상담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실습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여한 초·중등 교원들의 학생 상담 및 생활교육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최이슬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